

한화케미칼, 안전사고 대비 “이상무”

울산1공장 협력기업 포함 1690일 무재해 ... 2016년 ISRS 8등급 목표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은 울산1공장이 1690일 동안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안전조업 6배수를 달성했다고 6월17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작업시간의 6배의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2009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6월10일까지 울산 1공장의 재해율은 0을 기록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무재해 안전조업 6배수 달성은 임직원의 안전사고 건수만 적용하는 정부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사업장 내 협력기업의 안전사고까지도 포함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화케미칼 방한홍 대표는 “화학공장 사고는 생존과 직결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화케미칼은 직원과 협력기업 구분 없이 무재해 성과 포상 및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안전사고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10대 절대 안전 수칙> 선포식을 개최하고 수칙을 위반한 직원 및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나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환경안전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안전수준 평가로 인정받는 국제안전등급시스템 ISRS(International Safety Ranking System)를 도입해 2012년 공인 6등급을 인증 받았고 2014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해 7등급을 획득했다.

주요 글로벌 석유화학기업들의 ISRS는 8등급 수준이며 한화케미칼은 2016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8등급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7>